아무 말 없이 그냥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가 보세요

☞ 21면에서 계속

속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우주 법계를 돌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거를 그냥 굴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모두가 전체, 바로 그 도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그대로 합류화돼서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오신을 다 한데 합친 통을 굴려서 마음대로 적응하고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도, 그것을 못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연구해서 내놓을 줄 알았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건당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도, 이 우주 삼라만상에도 생명들이 꽉 찼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1(여)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3층 법당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꽃꽂이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어떤 거사님은 화엄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거대한 불바퀴를 보았습니다. 큰스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그 불바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색깔로 나투어진 그 큰 하나의 나툼, 그 어마어마한 나툼의 도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꽂으신 분이,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보는 차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큰스님께 무시이래로 물 한 방울도 보태짐도 줄어짐도 없는, 움직임도 없는, 그런 언어도단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의 나툼이, 굳이 우리 현상계로 생각을 한다면 감도 있으며 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무 작용이 없을 것 같지만 무한한 작용으로 그렇게 나툼의 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그 성품의 묘한 작용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허허, 댁이 알아듣기만 하면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먹어 봐라." 하는 뜻이죠. 즉 말하자면 보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말들은 모두 잘해요. "물이 컵으로 하나 가득 들어 있으니 이거를 먹어 봐라." 하고선 말들은 잘하시는데, 아무 말 없이 말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 먹고 갖다 먹일 줄은 모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내가 잘났다는 사람 잘난 거 하나도 없죠. 못난 거든지 잘난 거든지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다 다복하게 인연을 지었으니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알고 보고 듣고 했다면 실천을 하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육조 스님은 십여 년을 노고를 했다 이거야. 그게 점수야. 면벽을 하는 것도 그냥 면벽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천지에서 내가 나를 던질 줄 알고 행할 줄 알고, 늘 일 줄 알고 줄일 줄 알고, 그렇게 굴릴 줄 아는 바로 이름 없는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살이 지금 그렇게 안다면 마음이 뛰어넘어서 "실천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해라. 말만 앞세우지 말라. 알았으면 해 봐라. 길을 걸을 줄 알면 뛰어 봐라. 뛸 줄 알면 날아 봐라. 날아 보면 두루 돌아봐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났다 잘났다, 여자다 남자다 이걸 떠나서, 권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은 마음공부니까, 하여튼 아무 말 없이 그냥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가 보세요.

질문자1(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스님!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스님 뒤에 계시는 불상이 보기 좋아 선원에 다녔고, 그다음에는 스님의 모습이 좋아서 선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더디더라 그거예요. 왜? 모습과 상은 분명히 내 생각을 만드는 것뿐이고, 마음을 밝혀 주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계속 스님께서 설해 주시는 그 법문을 되뇌다 보니 "눈 뜨고 보는 것 이전의 마음을 봐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계속 마음으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은 뒤에 계시는 부처님 상과 앞에 계시는 스님의 모습 이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의 스님과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의 부처님이 생각이 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시는 스님과 그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계속 공양하다 보니 더불어 제 마음 또한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제 상(相)을 떼는 그런 모습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제가 정진해 나가는 제 모습이 잘못됐다면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모습을 또한 무시해도 안 되죠. 허허허.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이 모습도 있어야 바로 상대성의 이론이 되니깐요. 그래서 모습이 안 보여도 무효고, 또 몸이 만약에 죽는다면, 없어진다면 무효다. 정신만 있으니 남들이 보지 못하니까 무효다 이 소리예요. 또 정신이 없으면 몸이 송장이 되니깐 무효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과 둘이 아니게끔 이렇게 움죽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여여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 가지를 들이고 내서 만 가지를 연구할 수 있고, 만 가지라는 숫자보다도 천차만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학자가 한 가지를 연구한다면 마음공부하는 분들은 만 가지 천 가지 천차만별로 다 할 줄 안다, 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 마음 도가니 속에서 뛰어넘질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도 몸뚱이 체 안에 딱 갇혀서 마음이 벗어날 줄을 몰라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말입니다, 저기 그 담벼락에 그림 그린 거, 어디쯤이지? 그, 한양아파트. 거기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 놨는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그려 놨는데 넓게 보이게끔, 나무도 넓게 선 것대로 그렇게 잘 그려 놨더라구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거기를 들어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대로 철철 물 흐르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우죽죽 같이 들어서고 푸르르고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어느 어느 할 수 없는 일도 내 마음이 나를 수만 개를, 큰 일에는 수만 개를 내놓고 작은 일에는 조금, 거기 용도에 따라서 좀 던져 봐라 이 소립니다. 이 몸 안에서 옴쭉을 못 하는 마음을 좀 툭툭 던져 봐라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병원에 가서 무엇을 잘라 내는데 그거를 마취를 하고 자를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앞에 나무가 우거진 그림이 있고 물이 내려가는 개천이 있고 배 한 척이 있고 그렇더래요, 그림에. 그래서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앉았었대요. 그랬더니 수술을 다하고 나서 깨우더래요.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못 하리까." 하는 소리예요. 무엇인들 못 하리까. 이 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 하리까. 분리가 됐다가 같이했다가 하면서 하는데도 그냥 분리되지 않고도 이렇게,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많아서, 나 아님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 꺼내서 쓸 때에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큰 군사를 일으켜도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과학자들하고는 정반대의 크나큰 부처님의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지만, 지금 내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묘한 도리가 돼서, 사람들이 몇 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를 아십니까? 어디 서 있는 사람인지? 하치않은 스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 못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가지각색으로 나투는 까닭에 어떤 거라고, 위에 앉았다 아래 앉았다, 천하다 고귀하다, 지위가 높다 이런 것도 묵살되는 자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죠? 때로는 아주 속상하고, 갇혀 있으면 '아, 새처럼 좀 날아가 봤으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자유로 날아다닐 거 다 날아다니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니 구족하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그렇게 천차만별의 뜻을 가지고 하고 있다.

> **말만 앞세우지 말고 알았으면 해 봐라.**
> **길을 걸을 줄 알면 뛰어 봐라.**
> **뛸 줄 알면 날아 봐라.**
> **날아 보면 두루 돌아봐라.**

여러분이 지금 걸음을 걸어서 올라왔는데 걸어옴이 없이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걸어오는 사이가 없이 걸어왔습니다.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면서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당시 없어지는데 뭐 걸어온 자리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해를 잘해 보십시오. 걸어오면서 한 발 한 발 없어지는데 뭐가 남아서 고가 있으며, 뭐가 남아서 업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만, 아주 정말 시쳇말로 점프를 해서 내가 응용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벗어나서 한번 실험을 통해서 실천을 해 보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전자엔 그 뭐, 이런 말도 못 했습니다. 알아듣질 못하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을 벗어나서 던져 봐라." 이래도 알아들으실 수 있죠? 허허허.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여름에 무척 무더워서 목욕을 좀 해야 할 텐데, 바다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한 찰나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땀이 다 걷힙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날 고가 많고 업이 많고 팔자 운명이 있어서 만날 아프게 울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북하면 "고는 없다." 이랬겠습니까.

사실은 고는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일거수일투족 살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온 발자취 없어지듯 하거든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보면 딴 거 또 봐야 하고, 들으면 딴 거 들어야 하고, 이렇게 고정된 게 없이 자꾸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을 게 뭐 있어서 고라고 합니까?

고라고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어서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 운명이라는 소리도 여러분이 지어서 "아이구, 내 팔자야!" 하고 이러는 거고요. 그거를 굴릴 줄만 안다면 "내 팔자야." 할 것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흐르겠지.' 하면은요. 하지만 나 아님이 없는데 딱 나로만 생각한다면, 허, 조금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맘대로 왜 못 합니까? 왜 도가니 속에서 찌들려서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그럼 거기서 마음을 벗겨 내면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러겠죠. 마음을 던질 줄 알고 마음을 벗어나게 할 줄 안다면,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그것이 모두 뭡니까? 지금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몸을 이끌어 가면서 이 모두를 행하면, 함이 없이 생활을 하니 고가 없고, 세상에 남이 뭐래도 이 천지를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군사를 늘려야 할 텐데 늘릴 수가 없거든요. 옛날 얘기 책에 있었던 얘기인데 다 모릅니다만 "박씨부인전"이라던가 뭐, 예전에 얻어들은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초당에 죽 둘러서 노간주나무를 심었죠. 그 이파리 하나하나를 군사로 다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그것이 딴 사람이 볼 때는 환상이지만 그냥 기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물러가더랍니다. 이게 방편 아닌 방편이다 이 소립니다. 책에 방편이라고 해 놓고도 "방편 아닌 방편" 이렇게 썼죠. 실천을 하면서도 그게 방편이고 방편이면서도 실천이다 이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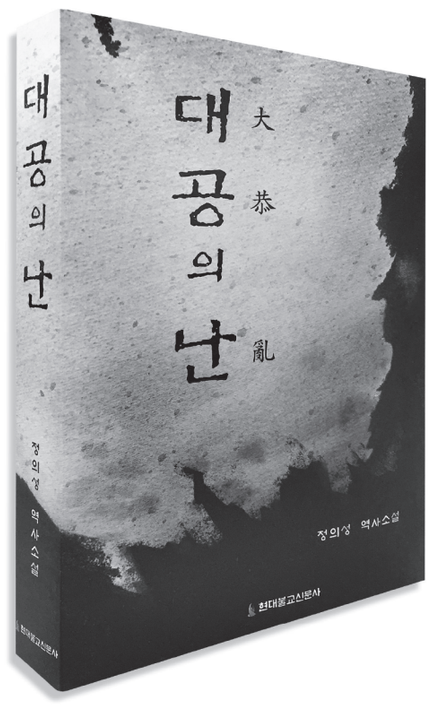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7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